

사랑터

제1717호

대림 제 4주일

2020년12월20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8551-2906(연령회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8:30특전 / (주일) 6:30, 10:30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12월20일(대림 제4주일)		12월27일(성가정 축일)		
새벽 미사	해 설	이상희 로사		배점미 안나	
	1독서	전정환 요한		박안홍 시몬	
	2독서	김영애 요안나		손수향 카타리나	
교중 미사	해 설	강경희 로사		손 요안나	
	1독서	송종식 올리아노		채경수 라파엘	
	2독서	한정선 아네스		손미정 수산나	
화 답 송	 <p>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 하리이다</p>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12월21일(월)	12월22일(화)	12월23일(수)	12월24일(목)	12월25일(금)
해설	손 요안나	조성률 스테파노	정미화 M.막달레나	김재실 에바리스토	이정애 실비아
독서	박행자 모니카	신비로운 장미	천상의 모후	1.장도영 마태오 2.손 요안나	1.김승원 마오로 2.황숙자 베로니카

12월20일 (대림 제4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안정준(바오로), 조양규(미카엘)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재경분과
	미사안내	가정사목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12/21(월)-12/27(일)	1구역 이진케스빌, 에코시티
	차량봉사(좌곤리)	김정숙(스텔라)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신강순(도미니코)
12월27일 (성가정 축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오일규(루카), 김정철(바오로)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홍보분과
	미사안내	재경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12/28(월)-1/3(일)	2구역 서구1, 서구2
	차량봉사(좌곤리)	김영자(프란치스카)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박계현(프란치스코)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 성탄 미사 안내**
 -성탄 대축일 밤 미사 12/24(목)21시 (발열체크봉사: 사목회장단)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25(금)10시30분 (발열체크봉사: 사목분과장)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특전 겸 송년미사 12/31(목)19시30분
 -대축일 미사 1/1(금)10시30분 (발열체크봉사: 사목회 전임원)
- 주일헌금 기부금 영수증**
 -주일헌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세대에서는 매주 주일헌금 봉헌 내역서를 작성 해서 헌금과 함께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사무실에서 받지 않습니다. (봉헌 내역서는 성전 입구에 비치)
- 12월 꾸리아 평의회**
 -일시: 12/20(일) 교중 미사 후
 -장소: 강당
 -참석대상: Cu.간부 / Pr.단장
- 김 요한네스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일시: 12/27(주일)
 -김 요한네스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분당 교육관 창고 정리(소방점검시 지적사항)**
 -정리기간: 12/12~26일
 -이후 일괄 정리합니다.
- 2021년 교무금 책정 봉헌 안내**
 -교무금 책정 봉헌서를 세대별로 가지고 가서 빠짐없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1일까지(사무실)
 -올해 책정한 교무금과 교구사업모금은 연말 까지 납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사업모금을 매월 책정해서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교무금의 2개월분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간소화 제출 동의서 작성(사무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매년 동의서 작성)
- 미사 참석 시 유의사항**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체크, 미사 참석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등의 기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 12월12일(토)-12월18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박월순(마리아)	9-10	정용경(골롬바)	12	김용만(사도요한)	7-12
장정호(요한)	11-12	김연순(마리아)	11-12	이두남(아가다)	3-12
최인석(다니엘)	12	김경순(올리아나)	1	구선이(루시아)	10-12
박해선(로사리아)	7-12	이순선(모니카)	1-12	최이균(베네딕도)	12
김판곤(오네시모)	12	정영권(미카엘)	12	김병찬(베드로)	11-12
김종진(안토니오)	12	이재동(토마스)	12	이상국(요아킴)	12
김병찬(바오로)	12	권지완(제랄드)	9-12	박순자(루시아)	11-12
이승옥(요엘)	10-12	정선자(아가다)	10-1	윤주국(알로이시오)	12
김종구(라파엘)	11-12	송계용(바오로)	1	최용훈(안드레아)	1
송혜영(골롬바)	9-10	허정진(요셉)	12	김광근(필립보)	12
하창용(바오로)	12	이장선(요한)	12	이진경(방지거)	12
구슬이(에메렌시아나)	12	심상봉(사도요한)	12	최창대(베드로)	12
박준규(아우구스티노)	12	추인식(사도요한)	1-12	박정천(테레사)	12

교구사업모금(2020년 배정액2,811만원중1741만원 봉헌) : 12월12일(토)-12월18일(금)

허정진(요셉)	완납	정이숙(모니카)	완납	정용경(골롬바)	12
김연순(마리아)	1	이두남(아가다)	완납	이순선(모니카)	완납
진일용(루치아)	완납	최이균(베네딕도)	12	이호형(프란치스코)	완납
김종진(안토니오)	완납	조세태(시몬)	완납	정인석(시몬)	완납
이재동(토마스)	완납	이상국(요아킴)	12	김병찬(바오로)	12
박종술(안드레아)	완납	이홍기(요한)	완납	박순자(루시아)	완납
정재복(아벤티노)	1	이승옥(요엘)	1	권미라(리오바)	완납
윤주국(알로이시오)	12	김종구(라파엘)	완납	송계용(바오로)	1
심상봉(사도요한)	12	김영자(프란치스카)	완납	추인식(사도요한)	완납
손수향(카타리나)	완납				

주일 미사 참례자수 : 240 명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5,248,000원
주일 현금	1,676,000원
교구사업모금	2,653,000원
성소후원금	140,000원
자선주일 2차 현금	427,000원

보례

세례 성사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물로써 받는 가장 귀중한 성사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성사의 중요성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세례 성사의 의식을 말씀하시진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 내려오는 성전에 따라 물로써 이마를 씻는 주수례와 영세자를 물에 담그는 침수례와 물을 뿌려서 주는 살수례로 나누어 세례 성사를 집행해왔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례의 중요성을 감안한 나머지 물로써 세례 성사의 본질적인 요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세례식 이전과 세례식 후에 몇 가지 의식을 붙였다. 예컨대 세례 전에 마귀를 끊어 버리는 서약 또는 신앙을 고백하는 서약과 세례 후에는 기름을 바르는 의식과 흰옷이나 초를 주는 의식이 있다. 그래서 공소 같은 곳에서 또는 병원에 있는 환자의 경우 물로써 이마를 씻으면서 세례 의식만 하는 것을 비상 세례라고 하는데 이런 세례를 받은 어린이나 혹은 성인이 신부 앞에서 일반 의식에서 빠진 의식을 보충하는 것을 ‘보례’라고 한다.

성 베드로와 오르세올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정과 번잡한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978년 9월 1일 밤, 당시 베네치아의 총독이었던 베드로 오르세올로(928~987)는 32세의 아내와 외아들을 뒤로 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물론 베드로 오르세올로가 성인이 된 것은 가족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금욕적인 생활과 기도를 통해서였지만,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소망은 우리들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이었다. 일과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영혼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그때가 피정이 필요한 시간이다. 피정은 번잡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이다. 비록 장기간의 피정을 할 수 없을 지라도 짧은 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두 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그리고 영혼의 휴식을 위해 초나 꽃, 또는 좋아하는 책을 갖고 들어가, 문밖에 널려 있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그 시간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그저 ‘존재하면’ 되는 시간이다.